

## 보도자료

2010년 4월 1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750-2730)  
인터넷정책과 박현선 주무관(☎750-2732) phsunny@kcc.go.kr

###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기업 CEO와 간담회」

#### - 범정부 인터넷 규제 개선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 발판 마련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4월 1일(목)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방문하여 설립 15년이 되는 다음의 기업환경과 인터넷 문화를 시찰한 후 인터넷 기업 CEO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KTH, 야후코리아, 구글코리아, 옥션·G마켓, 인터파크 사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1월 신년 인사회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마련된 자리로 최근 최시중 위원장의 인터넷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의 열풍이 정치·사회·경제적 모든 곳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비즈니스 또한 유·무선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줄 IT대표주자로 인터넷 기업들이 한번 더 도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사업 환경에서의 인터넷 비즈니스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법 규제,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당 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나 글로벌화된 사업환경에서 국내업계에만 규제가 적용됨으로 인해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해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규제인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하여 악성댓글,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비즈니스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 규제인 게임사전등급심의, 공공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개방화된 시장환경과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해당부처에 전달하여 규제개선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기협에서는 인터넷 상생협력 방안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인터넷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협력으로 인터넷 상생협의체 구성, 중소기업 정례 IR 개최 등 2010년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화답하였다.

끝으로, 최시중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터넷 생태계가 중요한 만큼 주위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끝.